

특별회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면하는 불평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삶

김주현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회원]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학습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을 쌓으려는 열정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어려운 학문의 길을 선택하고 심지어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나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길은 언제나 어렵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으로서 현재 사회에 정착하고 대학생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나 새로운 지식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정착 생활 사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초에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던 저는 우연히 유학이라는 길이 열렸고, 운이 좋게도 외국 대학교에서 유학생의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어려움보다 자유롭게 인터넷도 하고 통제 없는 곳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도 사귀고 싶은 마음의 충동도 느끼면서 북한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정착했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 한국분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말투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했고 많은 한국분과 말을 섞으면서 모든 것을 고쳐 나갔습니다. 그 후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목적이 뚜렷한 것도 아니었고, 못다 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학교 학과를 선택할 때 저는 사실 새로운 학문을 도전하지 않고 가장 내가 현재 잘 아는 학문으로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새로운 학문을 선택한다면 정착에도 어렵고 친구들도 사귀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학점을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자기소개할 당시 저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탈북한 사실을 알리면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출신을 숨기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앞으로는 꼭 우정에 금이 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 없이 바로 저의 고향을 말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다가와서 말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아는 것에 대해 어필하고 함께 배워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반응은 궁금한 눈빛과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눈빛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는 많은 친구가 다가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의 말투나 행동, 나이 때문에 북한에서 온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언제나 북한이라 명칭을 하기보다 지역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이유는 북한과 남한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통일을 바라고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왔어

요.”라고 대답하듯이 “저는 북한사람이에요, 저는 탈북자예요” 하기보다 “저는 평양에서 왔어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민 대학생의 경우 조용히 다니거나, 자신의 나이 등을 생각하며 동기들과 어울리기 두려워 출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정착 생활 중에서 자신의 출신 지역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먼저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후배 탈북대학생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나의 고향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면 친구들은 북한이라는 국가적인 개념보다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궁금증으로 자연스러운 스며들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의 이런 설명으로 후배 탈북대학생은 많은 동기와 국가적인 호기심이나 정치적인 질문보다 살았던 고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이질감 없이 친해진 계기가 되었으며, 무려 5살이나 많은 나이임에도 동기들과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는 모두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릴 적부터 해온 공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학문을 연구하며, 기초 공부의 부족함이 언제나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공부에 대한 어려움도 컸습니다. 비록 대학교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의 공부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나 발표수업과 팀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공모전을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역량과 능력이 발표에서 방해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친구들에게 부탁했고, 결국 저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뒷걸음질로 인해 저의 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발전이 더딘 것을 느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 발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여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정책 중 언어교정 스피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이나 대학교에서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남북하나재단에서 마련한 언어교정 교육이었습니다. 처음 강사님을 따라 기본 발음 부분과 표준어 사용 부분 등을 교정하면서 도움을 받았지만, 점차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대학생 특성상 발표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연습 과정도 필요한데 발음교정 등으로 마무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이 평일 오전 오후였는데, 대학생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진행했더라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서비스를 받아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도 많이 찾아보았지만, 생각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억양과 말투로 인한 자신감이 낮아진다는 연구는 많아도 이에 대한 결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입한 정책이나 그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저의 발음이나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맞지 않는다면 알려주고 개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북한의 특유한 발음과 표현하는 단어를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특유의 말투와 억양이라고 합니다. 저의 부모님도 밖에서 북한의 고유한 억양과 말투를 사용할 때 중국에서 왔냐고 오해하고 일부러 물어보시는 한국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는 또 하나의 상처이고 말투와 억양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자신감도 낮아집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억양과 말투를 한국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이목이 쏠리지 않도록 또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막연한 나의 대학 생활을 시작했으며,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아르바이트 했으며, 학과 행정 조교도 해보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학생연수와 봉사활동, 과외 등을 함께 하며 지냈습니다. 매일 바쁜 일상에서 어느 날 문득 안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미래행복통장과 취업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이란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 지원으로서 소득의 30% 이내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대1 매칭 지원을 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탈북하고 5년 이내 취업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실 탈북 후 5년 이면 사회 정착이 완전히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 것으로 보지만, 5년 기간은 이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나이 상대적으로 많아 빠르게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탈북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받지 못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어려운 공부를 극복하며 지내다 취업을 바로 해야 2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 대학 생활하면서 학습의 어려움과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휴학도 있을 것이고, 취업도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래행복통장이나 모든 제도에 도입되는 보호기간 5년의 열쇠가 걸려 있으면 대학생들 대부분은 서비스를 받아보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하던 중 행정 인턴을 하고자 휴학하였고, 이 기회에 미래행복통장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미래행복통장의 온전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고 1년만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 탈북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이 제도에 대하여 알지만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취업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선정기준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동일 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 원 / 지방 250만 원

1년(1년 차) / 수도권 500만 원 / 지방 600만 원

1년(2년 차) / 수도권 600만 원 / 지방 700만 원

1년(3년 차) / 수도권 700만 원 / 지방 800만 원]

취업장려금 역시 좋은 정책이며, 북한이탈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학생의 경우 기간의 한정으로 신청이 많이 어려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들에 대하여 조금 더 대상들을 분류하여 세부적인 대상을 만들어 모두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탈북자 제도서비스에 대하여 재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많은 정책이 도입되었고, 우리는 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지역 상담사분들을 통해 사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지만, 정작 신청하면 많은 정책 대부분이 해당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정책을 현시점에서 대학생과 직장인 등으로 분류하고 맞는 조건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만든 시점이 아닌 시시각각 변화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현시점에 맞게 개선된 조건으로 도입되는 정책이 가장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정책이 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뚜렷한 목표 없이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생활하면서 저의 부족함도 느꼈고, 그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밤을 새우면서 일한 적도 많았지만, 북한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로운 삶에 감사함을 여기면서 많은 것을 극복하고 지냈습니다. 현재는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외로움과 상처에 시달리고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된 국가에서 외면받지 않고 제3의 인물이 아닌 하나의 어울리는 사람들로 인정받도록 하고, 먼저 온 통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통일된 국가에서 그 역할이 빛이 날 것인가, 또 다른 제3의 취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세워 준다면 보다 나은 사회적인 정착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